

핍박에도 당 지키는 유승민... 호남 외면 신당창당 이낙연

유승민, 당 쇄신 요구하면서도 개혁신당 요구 뿌리치며 인내 강조 이낙연, 민주당에서 모든 혜택 받고도 탈당... "이해 불가능한 행보"

'제3지대' 행이 유력해보였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제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당내 만류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당과 창당에 이은 합당 행보를 보이자, 여야 정치권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운계를 직격하며 당 쇄신을 요구해오던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당 잔류와 차기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구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위원장의 회동 제안도 있었지만, 이를 모두 뿌리치고 당 잔류를 통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요구했던 윤 대통령의 반성과 당 정관계 변화 등 당 쇄신이 수용되지 않은데다, 사실상 당내 입지도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당을 떠나지 않은 데 대해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 잔류를 통해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행보의 발목을 잡아온 영남과 보수진영에서의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인내를 통해 보수 정치인으로서 향후 당내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두 차례 실패를 한 신당 창당과 합당 과정의 어려움을 비롯한 '제3지대 노선'에 대한 인식 차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이당은 특정인의 사당(私黨)이 아니다. 정치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

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신당행이 유력해보였던 유 전 의원이 소속당을 비판하면서도 인내를 강조하며 당에 남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는 등 소속당을 직격하는 같은 입장임에도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창당과 제3지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모든 혜택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을 깨고 나간 이낙연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 단순히 정치적 욕망으로 인한 행보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이 제기한 사당화, 팬덤, 586정치인 문제 등은 지금의 민주당만이 아닌 이낙연 민주당에서도 있었던 동일한 사안이다. 탈당의 이유로써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김대중 민주당"을 언급하는데,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면 끊기 있게 당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당 잔류는 곧바로 이낙연 위원장의 행보와 비교가 된다"면서 "이낙연 위원장이 광주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탈당한 이 위원장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현장을 다녀본 느낌으로는 지역 유권자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한 달 한동훈, 당정갈등 속 '공천 방정식' 풀까

김건희 여사 의혹 불씨 여전 당정 관계 재정립 시도 주목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정 갈등이라는 첫 허들을 힘겹게 넘어선 데 이어 총선 공천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할 2차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통합한 당정 갈등의 불씨가 공천 판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향후 어떤 색깔의 정치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집권 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위원장은 한 달 동안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당을 돌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고, 당내에서는 그의 행보를 두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둘러싼 당정 갈등 국면에서 대권 잠룡으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통령실이 전한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총선 정국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수도권 의원은 2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한 위원장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권 조선의

원도 "한 위원장 없이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비단 수도권 의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한 달 신고식을 마친 한 위원장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일단 우호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전체의 52%가 한 위원장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 (35%)와 17%포인트(p) 격차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른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긍정평가율 (52%)과 견주는 결과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하지만, 잠룡 한동훈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 달리 당 지지율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36%에 머물렀다. 이는 한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서 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야권이 제시한 '정권 심판론' 구도는 여전히 불식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이처럼 당 지지율 견인이라는 과제를 받은 한 위원장은 금주부터 총선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고, 인재 영입과 정책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하며 잇따라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행보와는 별개로 공천 문제가 향후 당의 총선 체력을 좌우하는 2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혁신 공천에 대한 민심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출마자와 정부 차출 인사,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주류, 영입 인사 등의 각종 이해관계와 공천 지분이 맞물린 고차원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당정 갈등 고비를 넘긴 한 위원장에게 더 큰 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당정 갈등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인 한 위원장이 김경을 비대위원의 마포를 출마를 공개 발표하며 빚어진 '사천' 논란이 끝나는 점은 결국 향후 당정 갈등의 진원지가 '공천'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다.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인선하고 선거 사무의 핵심 포스트인 사무총장에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배치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의 공천 영향력을 견제하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 갈등 봉합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는 일단 잠복했으나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향후 대응 방식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고 이와 맞물려 당정 관계 재정립 요구가 거듭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31%... "부정평가서 여사 문제 부상"

갤럽, 국민의힘 36%·민주당 3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1월 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1%였다.

1월 3주(16~18일)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2주 33%→3주 32%→4주 3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5%p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

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며 "과거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증가한 바는 있으나 그 비율이 5%를 넘지 않았다"고 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행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 2%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7%p 상승한 9%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주 연속 36%를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p 올라 3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³/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료

- 1997 태린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